

실험적 타이포그래피로서의 시각시 디자인

A Study of 'Typo-poem' Design as a Experimental Typography

김 주 성

명지전문대학 시각디자인과

중심어 : 시각시 Typo-poem

굿 타이포그래피란 정보와 영감의 융합이며 또는 무의식과 의식, 어제와 오늘, 사실과 상상, 작업과 놀이, 기술과 예술의 융합이다.

-Paul Rand

타이포그래피는 커뮤니케이션을 전제로하는 이미지, 또는메시지가 내는 목소리를 디자인하는 것이다. 문자들은 수백년을 다듬어져 온 언어 심벌이며 그 심벌은 마치 한 글자 한 글자안에 그들 문화권의 사람들이 구석구석 살아온 건축물과도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둥이 서고 보가 바치고 획이 빗치듯 유연한 공간은 비어있지만 그 빈 자리에 정보들을 채우는 그릇이 된다. 타이포그래피는 결국 메시지를 담은 그릇, 또는 건축물이라는 형태와 그안에 비어져서 담을 수 있는, 쉬도록 걸터 앉을 수 있는 네가티브 공간을 디자인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릇을 다듬고 만드는 일은 문자가 생기고, 활판으로 인쇄되기 시작한 이래로 기술적 정밀함과 뉴 미디어의 발달로 급격히 팽창되었고 테크니컬 타이포그래피의 원칙들을 세우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메시지의 목소리는 형태가 없는 글자의 네가티브 공간과 비유되며 타이포그래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공간다루기이다. 글자와 공간을 조형적으로 다루면서 타이포그래피의 표현의 예술적 가능성은 확대되기 시작했다.

시각시

타이포그래피에 있어서 이미지와 공간에 대한 관심과 그 역사는 20세기 초반부터라고 여겨진다. 19세기까지 의식적이며 장식적인 디자인의 타이포그래피는 조형요소와 언어의 의미구조를 따로 따로 가지는 시기였으며 20세기 초반의 일련의 새로움의 충격과도 같은 무브먼트는 조형요소에 대한 자율성과 순수성을 얻어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획득된 조형적 자율성은 타이포그래피에 있어서 문자의 시각적형태의 중요성과 청각적 효과의 표현 가능성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미래파시인들의 자유로운 언어에 의한 새로운 생각들과 이미지는 그 이전과는 다른 활자들과 전혀 다른 표현들을 추구하기에 이르러 결정적인 타이포그래피의 발전을 예고했다. 미래파의 자유시들은 일률적인 조판에 의하지 않고 당시로서는 제작하기 어려웠던 자유로운 글줄의 배열 등 활자가 놓여지는 지면을 회화적 공간으로 전환시키면서 그들의 정신과 실험, 속도, 동시성을 표현한다. 아폴리네르는 끌라쥬 기법을 주로 사용하면서 표의문자적 실험과 상형시를 실험, 처음으로 캘리그래미란 용어를 만들었다. 1930,40년대에 문학으로 이어지는 다음의 시의 개혁운동이 구체

예술이다. 서술적 문체와 시구의 운율, 형식의 단위를 중시하던 시대에 서 시의 구조적 요소와 글자공간 모두를 사용하는 언어의 조형적 구조와 구체적 형상을 가진 시각시가 발전하게 된다. 이같은 일련의 실험적 표현은 활자와 그 공간에 대한 새로운 조형과 종합적이고 광범위한 예술적 가능성은 보여주며 현대의 타이포그래피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시각시의 타이포그래피적 구조

타이포그래피에서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는 이미지와 언어를, 그리고 문자와 공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다.

의미, 이미지-Narration -text - 본질- 표현적

커뮤니케이션 기호, 언어- Transmission - data- 현상 - 주제적

조형, 문자와 공간- composition - Material - 존재 - 미적

시각시는 이같은 문제에 있어 텍스트의 이미지 나레이션과 언어의 기호적 전달, 그리고 문자와 공간의 컴포지션이 동시적으로 일체화 시킨 처음의 시도로 보여진다. 문자와 공간은 바탕과 형태의 개념을 벗어난 조형적 재료로 상호 존재적 관계로 구성되며, 이 때 전체의 계슈탈트는 텍스트의 나레이션 어법에 근거한다. 비어있는 공간은 침묵이며 톤과 억양, 분위기와 음색, 속도 등을 담아내면서 시각적이고 청각적으로 표현된다. 다시 말하자면 타이포그래픽 메시지는 contents, form, context로 구성되어 있음을 도출하여 볼 수 있으며 verbal 커뮤니케이션과 구분되는 점은 form의 역할이다. 시각시에서 돋보이는 점도 내용, 문맥과 유기적으로 구성되는 form- 즉 아나로그 코드의 표현 가능성의 확대일 것이며 이는 타이포그래피에서 단순히 statement 되는 정보전달의 차원에서 한층 더 적극적인 나레이티브 구조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매우 중요한 관점이라고 보여진다.

시각시 디자인

시는 다른 어떤 문학적 형식보다도 영상적 이미지와 기호가 극도로 압축된 언어 형식이다. 시는 시간적인 전개와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는, 호흡과 청취가 결합하는 행동이라는 다다이스트-슈비터츠의 말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시는 시각 뿐아니라 청각, 호흡의 전달형식이다.

그러나 모든 시들은 외형적인 면에서 대체로 비슷한 문학적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기호화된 문자와 부호들을 이용하여 전통적 시어가 가지는 한계 안에서 그려지고 있다는 점에서 디자인의 실험은 시작된다. 시각적 요소는 컴포지션의 채널로 시각화되며 청각적 요소는 나레이션의 채널로 전환된다. 단어는 음성기호로서 음과 뜻외에 추상적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그 형태는 공간을 갖는다. 추상심벌과 공간, 이것은 컴포지션의 결정적요소로서 지면은 화면공간이 되고 심벌들은 그 사이에서 유기적으로 그루핑된 한편의 계슈탈트를 이룬다. 문자의 크기와 무게, 구조, 단어와 글줄, 그리고 그 놓임새와 사이 공간은 상호 유기적관계에서 나레이이션하는 이의 음색과 토운을 표현하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기본적인 가독의 시선을 따라 시간적으로 전개되는 나레이티브 구조로 표현될 수 있다. 시의 형식과 내용이 주관적이며 상징적이며 시디자이너의 나레이티브 구조나 조형요소들의 레이아웃 발상 자체가 추상적, 나아가 매우 실험적이며 철학적인 표현이 될 가능성도 많으나 단지 낯설게하는 것은 실험과 다르다.

프로젝트

시 디자인의 프로젝트는 시의 선정과 낭독에서 부터 시작되어 약 4-5주의 기간동안 제작된다. 컴포지션+나레이이션의 구조로 아이디어를 전개하여 리뷰와 토론을 통해 최종안을 선정. 토론은 시의 주관적 이미지 해석과 그 표현의 연관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20세기 초반의 타이포그래피에 관한 세미나를 통해 시각시에 관한 역사적 사례를 연구한다. 주어지는 조건은 타이포그래픽 캐릭터, 사진이미지 등을 보조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색은 블랙 1도, 컴퓨터, 또는 수작업의 병행도 무방, 크기는 A4,

맺는 말

타이포그래피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어떠한 정보든 전달이 되어야 하고 읽혀져야 한다는 것에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의 물량은 점점 확대되고 뉴미디어가 급속한 변화를 보이는 환경에서 민감하게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대처하고 미래에 도전하고자 하는 디자이너에게는 끊임없는 실험정신이 요구된다.

뉴 미디어가 요구하는 현대 타이포그래피는 보여지는 것에서 나아가 들려지는 타이포그래피로의 전환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한다면 단순히 읽혀지는 정보나 시가 아닌 인스피레이션이 시각적으로 보여지고, 음색이 들려지는 시가 되도록 디자인한다는 것은 그간 유럽에서의 선구자적 역할이 밀바탕된 서구의 타이포그래피에 비해 아직은 더딘 발전을 보이고 있는 우리 한글의 폭넓은 미래를 개척하고자하는 하나의 실험으로서의 가치를 가진다고 본다.

